

‘공감하는 시민 되기’를 위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

성신형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시민성과 공감
- III. ‘되기’의 윤리
- IV. ‘공감하는 시민 되기’와 기독교윤리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02>

* 본 논문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한국사회문제와 기독교윤리: 공감-공생-공명의 삶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4월 29일에 열린 2023년도 한국기독교윤리학회에서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ABSTRACT •

Christian Ethical Approach for ‘Becoming a Citizen with Sympathy as a Christian’

Associate Prof., Seong, ShinHyung (Soongsil University)

First, this article reflects on the appearance of Korean Protestantism, which has fallen into the object of vigilance and hatred by many people as it passes through the COVID-19 crisis. This study finds the cause of these problems in the citizenship of Korean Protestants and proposes the ethics of becoming a sympathetic citizen as a solution. This study presents a way to realize ‘becoming a sympathetic citizen’ with the key words ‘empathy,’ ‘citizen,’ and ‘ethics of becoming’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empathy as a civic virtue. I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thics of becoming’ through Haraway’s ‘reason for becoming,’ ‘to be with the trouble.’ At the same time, while attempting Christian ethical reasoning to ‘become a sympathetic citizen,’ I examined the meaning of Jesus’ incarnation and Jesus’ teaching on ‘becoming’ through the likeness of the Good Samaritan. Finally, this study attempts to reflect on Christian ethics to ‘become a citizen with sympathy as a Christian’ while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practicing ‘enemy love’ through the practice of the golden rule in the sermon in Luke chapter 6.

Key words: Sympathy, Citizenship, Ethics of becoming, Dialectics of love and justice, Christian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개신교인들이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때마다, 많은 기독교인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일부야.’ 하고 스스로 위로하곤 하였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려고 했던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의 변명을 받아주는 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가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관용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위기를 지나가면서 일부의 일탈이 아닌 상당수의 교회가 “개독이 개독하고 있는” 상황을 개신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¹⁾ 최근 한국 사회의 비기독교인들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되었을까?’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아야 하겠지만,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공감하는 시민 되기’에서 찾고자 한다.

‘시민’ 개념은 B.C. 6세기경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로마, 중세, 근대를 지나오면서 그 의미가 변화되어왔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시민은 도시 국가에서 책임을 부여받은 자유민을 의미하였다. 이후 로마 공화정 시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주권을 가진 주체적 시민으로 민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민

1) “~~가 ~~했다”라는 표현은 인터넷에서 어떤 집단을 회화하거나 비판(비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 중에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독이 개독 했다”라는 표현이다. ‘개 + 기독교 = 개독’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꽤 오래전 일인데, 한때 이것은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면서 개신교 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자, 이 표현을 쓰는 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개신교에서 시작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개독이 개독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 더욱 아픈 것은 ‘혐오 표현은 좋지 않은 것이니 이 표현을 멈춰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점이다.

개념은 근대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근대 시민 개념은 다섯 단계로 변화하였는데, 첫째는 로크와 홉스가 제시한 국가와 개인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어서 형성된 근대 국가의 시민 개념으로 이 개념은 시민에게 충성의 대상으로 ‘근대 국가’의 개념이 형성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둘째는 프랑스 시민혁명(1789) 이후 민족 개념과 국가가 하나로 융합된 시기의 민족 개념으로, 이 시기에는 혈연적 의미의 ‘민족’이 사회적 의미로 발전되어 민족 개념이 ‘공화정’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면서 국가 개념과 융합되었다. 즉, 근대 국가는 민족과 국가 개념을 융합하여, 국가 밖의 사람들을 분리하는 배타적 시민성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국주의와 함께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 시민은 신민(臣民)에 가까운 개념으로 동일성의 논리에 따르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백성으로, 이는 절대왕정 국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20세기 초·중반 시기로 국경 넘어 이주나 이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단일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흔들리면서 이주민이 주류집단에 동화되도록 하는 동화주의 시민성이 발전하였다. 다음으로는 2차 대전 이후 시민들은 주류집단의 동화주의 시민성을 거부하면서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면서 형성된 시민성이다. 다름과 차이를 정치의 주요 가치로 다루었으며, 동일성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다. 끝으로 현대 포스트모던 철학과 함께 형성된 세계시민성 혹은 트랜스내셔널 시민성을 강조하는 단계로 발전되었는데, 이는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²⁾

한편 한국 사회에서 시민성은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 독재와 민주화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도시화, 산업화, 개인화의 과정을 매우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경험하면서 발전했다. 시대적으로는 첫째, 서구 자본주의

2) 이종일, “사회변동과 시민성 논쟁,” 『사회과학연구』 25(3)(2018), 10-11.

체계에 영향으로 민족 국가 개념이 형성되던 시기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 이후 4·19혁명까지의 시기를 들 수 있다. 둘째는 1962년 이후 권위주의 정권하에 국가 주도 산업화를 이뤄냈던 시기로, 한국 시민사회는 국가 자본주의에 저항하여 민주성을 주요 가치로 형성했다. 세 번째 단계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면서 시민성을 보장한 시기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오늘날까지의 시기이다.³⁾ 현재 한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를 경험한 세대와 1962년 이후 산업화를 이뤄냈던 세대가 양립하면서 중심 세력을 이루었는데, 이 두 세력은 자신들의 진영논리를 발전시키면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생산해내는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 이 두 세대의 대립은 미래 한국 사회가 나아갈 건강한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한국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 즉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형성된 혐오와 배제(exclusion) 메커니즘을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감과 공존의 시민성을 형성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⁴⁾

‘시민성’이란 시민이 지녀야 할 덕으로 시대마다 이러한 중요하게 제기 되는 덕이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시민의 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나 플라톤의 ‘정의’, ‘지혜’, ‘용기’, ‘절제’ 등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플라톤의 4주 덕에 믿음, 소망, 사랑을 넣어서 7주 덕을 강조하였고, 근대 이후 혁명 시기에 중요한 덕은 ‘관용’, ‘자유’, ‘박애’ 등의 덕들이 있었다. 오늘날 현대 민주 사회에서는 ‘타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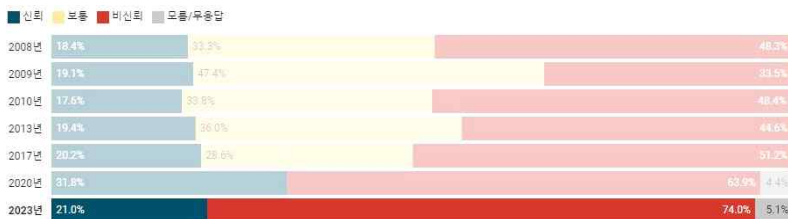
3) 박상필, “시민사회의 한국적 적용과 변용,”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3), 130-136.

4) 정재원, “혐오 사회와 공존의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2019), 100-101.

대한 배려’, ‘공감’, ‘민주 의식’, ‘공정함(정의)’, ‘공공의식’, ‘법과 질서’ 등이 중요한 덕으로 여겨지고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덕목 중에서 ‘공감’ 개념을 토대로 시민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하는 시민성이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서 ‘되기의 윤리’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통해서 ‘공감하는 시민이 되는’ 기독교윤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시민성과 공감

지난 2월 기윤실에서 발표한 「2023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 결과를 보면 한국 개신교를 신뢰하는 비율은 21%에 불과하였고, 74%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 결과는 기윤실의 여론조사가 2008년 실시된 이래 최저치 기록이다. 그 변화의 추이를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⁶⁾



기윤실 의뢰, 지향컴리서치 조사. 한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3.1.11~15.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Chart: NEWSNJOY • Source: 기윤실 • Get the data • Created with Datawrapper

5) 박선영·목광수·김승환·성신형, “시민성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이해 분석과 기독교 사회윤리적 답변,”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71-73.

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89>, 아래의 그림은 기윤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뉴스엔조이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표이다. 원자료는 기윤실 「2023 한국교회신뢰도 조사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 연구자가 주목하는 지점은 자료집 52쪽에 ‘귀하께서는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60%가 ‘교회의 교리를 추구할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고 23.6%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대답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료집 50쪽에 한국 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 전망에서는 69.6%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하였고, 25.2%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개신교가 보여준 사회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코로나 방역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방역을 지키는 일을 예배 탄압이라고 규정했던 한국 개신교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⁷⁾ 이는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사회가 개신교 국가가 아닌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라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덕, 즉 시민성의 부족이다.

시민성, 즉 시민이 지녀야 할 덕의 차원에서 본 조사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자료집 60쪽에 ‘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3.7%가 ‘나만 옳다는 자세’, 21.5%가 ‘이기적 태도’를 꼬집었다. 즉, 본 조사를 보면 45% 정도의 대답이 한국 개신교인들이 공감하는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신앙적인 도그마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개신교인

7) 최승현, “코로나 4차 대유행인데 ‘대면 예배’ 강행한다는 목사들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어, 마귀 사주받은 공산당이 하는 수작,” 「뉴스엔조이」 2021년 7월 6일, 인터넷판, 2023년 4월 21일 접속.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85>

들의 이미지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성의 덕목 중 ‘공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공감은 사회성을 키우는 중요한 정서적 기제로 작동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인간화하고 인격화하는 도구가 된다.⁸⁾ 또한 공감은 개인 간의 차이가 있는 일종의 능력이다. 다른 사람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면서 타인의 생각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공감능력이다. 공감 능력은 시민의식(시민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그 이유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 중 하나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이다.⁹⁾ 이와 같이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을 제공하는 공감은 시민성의 기본 덕목 중 하나이다.

공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적 토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는 “관계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작용 일반을 포괄”하는 개념인 ‘정(情)’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황판단과 의지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교의 추기급인(推己及人)에 해당된다.¹⁰⁾ 다음으로 생각해볼 개념은 심퍼시(sympathy)로 이는 동정 혹은 동감으로 번역된다. 심퍼시는 ‘함께 느끼는 감정’ 혹은 ‘공통으로 가지는 감정’으로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타자를 이해하고 자각하는 윤리적 인간학의 의미를 담고 있다.¹¹⁾ 다음으로는 감정이입으로 많이 번역되는 엠퍼시(empathy)가 있다. 공감하는 일은 감정이 전이되어 ‘내가 너가

8) 이선영, “다문화 시민성의 구성요소로서의 공감의 확장성,” 『글로벌교육연구』 5(2) (2013), 55.

9) 이병임,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5(3)(2021), 185-186.

10)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길, 2017), 22-23.

11) 같은 책, 31-34.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생각할 개념인 ‘정의 운동’으로서의 ‘정동’이라는 개념은 애퍼시에 더 잘 연결된다.¹²⁾ 다음으로 ‘정동’은 아펙트(affect)를 번역한 것으로 심퍼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정동 개념은 일종의 사건으로 감성적인 차원에서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인 규율을 의미한다.¹³⁾ 공감은 사회적인 공간(場)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공감장(共感場)을 이해하면서 정치·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공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피는 일이 시민성으로서의 공감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개념의 바탕위에 형성된 공감은 시민의 덕을 드러내는 윤리적 의미를 지닌다. 윤리가 타자와의 관계를 기본 전제로 하여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원리라고 한다면, 인간의 윤리적 행동은 공감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¹⁴⁾ 공감 작용은 타자의 고통과 반응하는 자아의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랑과 양립한다. 사랑을 공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작용이면서 운동인 사랑은 공감활동의 기초로서 작용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사랑이 결여되면 공감도 소멸되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난다(그러나 공감이 결여된다고 사랑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공감 활동은 사랑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주어진 대상을 전면적으로 지향하면서 일어난다.¹⁵⁾ 더 나아가서 공감과 연결된 인간의 윤리적 활동은 시민의 덕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공감은 ‘공론’과 교차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공론이란, 감각적 공감이 외적으로 구체화된 형태이다.¹⁶⁾ 시민사회는 ‘무의식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감의 역동적인 메커니즘이 발

12) 같은 책, 35-39.

13) 같은 책, 40-42.

14) 막스 셸러, 이을상 옮김, 『공감의 본질과 형식』,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92-93.

15) 같은 책, 93-94.

16)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46-47.

현되는 ‘공감장’에서 공론의 과정을 만들어낸다. 이는 공동의 아비투스(habitus)로서 실천적 인식을 구성하여 시민의 감성을 형성한다. 시민의 다양한 감정은 공감장 안에서 충돌하면서 ‘공감 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의식은 공론이 된다.¹⁷⁾ 그러므로 공감은 사랑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운동으로서 활동하는 윤리적 특징을 지닐 뿐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 자체로서 사회윤리이다.

본 연구는 ‘공감’의 윤리적 의미를 잘 드러내는 예로 레비나스에 주목한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형식적이지 않은 타자성을 형이상학적으로 욕망하는데, 이는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타자성은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일자의 주도권을 거부하고, 동일자로부터 한계지어지지 않는 타자를 욕망하게 한다. 이 타자는 나에게 다가온 낯선 이로 집에 거주하고 있는 나를 문제 삼아서 집에 있음을 방해한다. 이 타자와 나는 공통 개념도 같지 않으며 동일자 의식도 없다.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있을 뿐이다.¹⁸⁾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형이상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대화로 이뤄진다. 이 대화는 나와 타자가 대면(face-to-face)의 과정으로 드러난다. 내 앞의 욕망은 나를 타자와의 관계의 가능성 속에서 향유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진리와 정의를 욕망하게 되면서, 이 욕망은 그 정점에 달한다. 이 형이상학적 욕망이야말로 자아를 존재하게 한다.¹⁹⁾ 그렇다면 욕망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계시된 현전이다. 이는 얼굴의 현현(epiphany), 즉 얼굴로 다가온 낯선 타자를 무한의 경험으로 체험하

17) 같은 책, 51-57. 이 부분에서 본 논문의 기획 의도가 숨어 있다. 전염병 상황에서 시민의 우선 순위는 안전과 확산 방지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공간을 얻게 되었다. 반면 일부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인 계명을 그들의 최우선 순위로 두었으나, 이는 공화국의 시민들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었다. 두 가치가 양립하면서 ‘공감하기’와 ‘공감하지 못함’의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18) 임마누엘 레비나스,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옮김, 『전체성과 무한 -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고양: 그린비, 2018), 26.

19) 같은 책, 78.

는 것이다.²⁰⁾ 이것은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은 얼굴 그 자체가 표현하는 생명을 말(Saying)로 듣는 경험으로서의 현현이다. 얼굴은 말한다. 그러므로 얼굴의 현현은 대화이다.²¹⁾ 우리는 이 대화에서 시작된다. 이 대화로 나와 타자는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 대화는 윤리이다.²²⁾ 이와 같이 타자에 대한 자아의 지향을 윤리의 토대라고 본 레비나스의 주장은 타자의 경험과 반응하는 공감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공감이 윤리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III. ‘되기’의 윤리

되기의 윤리는 가장 급진적인 전환(Radical Conversion)이다. 되기의 윤리는 새로운 관계맺기이다. 되기의 윤리가 가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근대적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분법적 사유를 벗어나야 한다. 근대적 인간이 추구해온 정신과 세계의 이분법적 분리는 끊임 없는 폭력과 파괴, 비인간화, 반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되기의 사유’가 가능하려면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를 벗어나야 한다. 존재는 분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계적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관계성은 유물론적이다. 왜냐하면 이 관계성은 자아와 타자, 문화와 자연,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기계 등 환경적·문화적·기술적 이분법의 경계를 깨드리고 인간이 모든 것들과 물리적·정신적으로 관계 맺으며 살기 때문이다.²³⁾

되기의 윤리는 동일성의 자아가 아니라, 차이의 자아를 긍정한다. 차이의 긍정은 존재함(혹은 존재, being)이 아닌 되어감(becoming)의 자아에

20) 같은 책, 79.

21) 같은 책, 83-84.

22) 같은 책, 105-106.

23) 김은혜, “포스트 휴먼 시대의 되기의 기독교윤리,” 『신학과 사회』, 32(2)(2018), 228-230.

관심을 가진다. 이는 차이의 주체성이다. 차이의 주체성은 정서적·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집단들의 집단적 정체성(identity of collectivity)을 구성한다. 이는 동화, 동질화, 혹은 보편화의 과정이 아닌 다양한 그룹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서로의 물질적·신체적 차이를 긍정한다. 더 나아가서 이 차이의 주체성은 윤리적 책임에 기초한 행동의 실천을 우선시하는 실천윤리를 형성한다.²⁴⁾ 또한 되기의 윤리는 생활의 윤리이고 긍정의 윤리이다. 차이의 긍정은 삶의 긍정을 이끌어내고, 삶의 긍정은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공동체의 변화는 사회변혁을 추동한다. 이러한 삶의 윤리는 거시적인 차원의 윤리 실천이 아니라, 소수자 되기, 즉 상처받고 배제당하고 박탈당한 소수자들과 연대 하면서 동화의 사유가 아닌 관계적 사유를 실현한다.²⁵⁾

관계적 사유를 통한 ‘되기의 윤리’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본 연구는 도나 해러웨이에 주목한다.²⁶⁾ 해러웨이는 두 개의 문제적인 선언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 ‘되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해러웨이는 1985년 「사이보그 선언」(A Cyborg Manifesto)과 2003년 「반려종 선언」(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를 발표하면서 단순한 이용이나 상호 보완의 차원이 아닌, 새로운 존재 ‘됨’을 주장하였다.²⁷⁾ 최근 해러웨이는 더 급진적인 ‘되기’를 선언하였는데, 그것은 ‘퇴비

24) 같은 글, 230-235.

25) 같은 글, 235-248.

26) 유물론자 해러웨이를 기독교윤리적인 차원에서 응용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최근에 「선교와 신학」에 “도나 해러웨이의 『트러블과 함께하기』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교차 읽기: 기후위기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성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해러웨이의 작품과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유의 전복적인 사유의 방법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복적 사유의 연장선에서 ‘되기의 윤리’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27)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인간과 동물과 사이보그에 관한 전복적 사유』 (서울: 책세상, 2019), 7-14.

선언’이다.²⁸⁾ 해러웨이는 인류가 직면하게 될 대멸종의 시대를 단순히 ‘인류세’라 부르는 것을 거부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복적인 사고를 통해서 대멸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러웨이는 인간중심주의를 반대하면서 ‘트러블과 함께 하기’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넘어설 방법을 제안한다. 해러웨이는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지녀왔던 종말론적 희망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거하면서 화해와 복구를 시도하는 종말론적 희망은 현재와 관계맺기를 거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신 해러웨이는 현재의 평범성과 함께 즉 현재의 ‘문제(트러블)와 함께 하기’를 제안한다.²⁹⁾

해러웨이는 ‘인류세’ 개념을 거부한다.³⁰⁾ 왜냐하면, 인류세는 인간중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인류세는 재앙의 시대이다.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죽음과 멸종을 기다리면서 멸종을 향해 돌진하는 긴급한 시대이다. 그 어떤 존재도 서로 마주보며, 위기에 응답하려하지 않는다. 눈길을 마주하지 않고 철저히 회피하면서 그 어떤 응답도 기대할 수 없는 ‘눈길 회피의 시대’이다.³¹⁾ 그러므로 해러웨이는 지금 이 시대를 인류세라

28)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옮김,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서울: 마농지, 2021), 166. ‘퇴비선언’은 ‘사이보그 선언’이나 ‘반려종 선언’처럼 그녀가 직접 발표한 선언이 아니라, 그녀의 책 『트러블과 함께하기』에서 “우리는 퇴비이지 포스트휴먼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인간성(humanities)이 아닌 부식토성(humusities)을 띠고 있다. 철학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나는 퇴비주의자이지 포스트휴머니스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퇴비 공동체를 주장한 것에서 착안되었다.

29) 위의 책, 7-8.

30) 1980년대 생태학자 유진 스토머(Eugene Stoermer)가 약 1만 년 전부터의 지질시대를 지칭하던 ‘홀로세(Holocene)’ 대신 ‘인류세(Anthropocene)’를 제안하였고, 이후 2000년대 대기화학자 폴 크루첸(Paul Crutzen)이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류세를 사용하고 있다. 홀로(holo)는 전부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홀로세는 빙하기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따뜻한 시기를 말한다. 인류세는 2016년 제35차 세계지질과학총회(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의 인류세 워킹그룹 투표에서 ‘인류세’의 사용이 통과되었고, 앞으로 전문위원회와 전체 총회를 거쳐서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31) 위의 책, 66.

고 부르기보다는 자본세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류는 탐욕, 남근숭배, 근대화, 인간화, 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등의 가치들에 빠져서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는 종말론적 미래와 연결되어 위태로움을 거부하고, 자율 생산(auto-poiesis)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위기를 벗어나기는커녕 모든 생명의 삶이 터전을 불모지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³²⁾

해러웨이는 ‘인류세’ 대신 ‘쓸루세(Chthulucene)’ 개념을 제안한다.³³⁾ 쓸루는 거미의 계속되는 실뜨기 작업에서 연상된 용어로, 자율생산이 아니라 공-산(sym-poiesis)의 과정에 기초한다.³⁴⁾ 그러므로 해러웨이가 제안한 쓸루세는 인류의 삶의 터전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공-산의 놀이를 하는 시대이다. 멸종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종말론적 희망을 강조하는 인류세나 자본세가 아니라, 위태롭고 불안한 지구 안에서 다수의 생명들이 함께 만드는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시대이다.³⁵⁾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인간중심적인 사고로 만들어낸 ‘인류세’나 그 탐욕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낸 ‘자본세’적인 사유를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삶의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모든 생명을 위한 퇴비 더미를 만드는 과정에 달려있다. 해러웨이는 “인류세의 쓰레기, 자본세의 절멸주의를 그러모아 자르고 조각내고 켜켜로 쌓아, 여전히 가능한 과거들과 현재들 그리고 미래들을 위해 훨씬 더 뜨거운 퇴비 더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⁶⁾

32) 같은 책, 88-89.

33) 해러웨이는 한 마리 거미 피모아 크툴루(Pimoc chthulbu)의 철자를 바꿔 쓸루(chthulu)로 표현하였다. 그녀는 수많은 촉수로 세계와 세계를 연결하면서 실뜨기를 하는 모습을 연상해서 이 단어를 만들었다.

34) 같은 책, 58-59.

35) 같은 책, 99.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산(함께-만들기)’의 사유와 함께 ‘응답-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지구의 생명체는 결코 혼자자 아니다. 인류가 혼자서 역사를 만들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자율생산’과 ‘자기조직’은 허구이다. 오직 ‘공-산(함께-만들기)’의 작업을 통해서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명 의 위기에 응답할 수 있다.³⁷⁾ 그러므로 해러웨이가 말하는 ‘트러블과 함께하기’는 예술 활동이다. 이는 과학과 예술이 함께-만들기(공산)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다. 나와 타자, 인간과 자연, 모두는 ‘공-산’의 관계를 살아가고 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전 생명이 함께 실천 가능한 놀이를 하는 것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이다. 이것은 쓸루세를 함께 살면서 모든 생명이 ‘공-산’의 공간과 시간을 함께 살아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서로 응답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또 키워내야 한다.³⁸⁾

해러웨이는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를 쓸루세를 위한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 해러웨이는 페미니스트들의 선구적인 활동에 다시 한 번 주목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성, 젠더, 인종, 국가, 계급, 기관이나 유기체의 형태, 생식, 인간의 재생산, 개인들의 구성 사이의 구습적인 매듭을 해체해 왔다. 쓸루세는 페미니스트들의 창의적 행동력이 다시 필요하다. 해러웨이는 혈연으로 얽혀진 관계로서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

36) 같은 책, 100-103.

37) 같은 책, 107.

38)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에서 응답하는 능력을 키워내는 일과 그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레비나스는 책임의 원천으로서 ‘죽이지 말라’는 타인의 얼굴의 호소에 대답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해러웨이는 레비나스의 이러한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죽이지 말라’는 생명 우선의 원칙은 박멸주의의 또 다른 변형이기 때문이다. 생명-우선주의에 기초한 ‘죽이지 말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인간에게 제시함으로써 윤리는 그 불가능성 뒤로 인간을 숨어버리게 만든다. 이에 해러웨이는 ‘죽여도 되는 걸로 만들지 말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는 윤리의 불가능성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책임에 대해 묻고 대답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최유미, 2020, 92-101, 최유미는 이 책에서 해러웨이의 『트러블과 함께하기』외에도 *When Species Meet*과 *Manifestly Haraway*(『해러웨이 선언문』)를 인용하여, 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

라, 함께 살아갈 ‘사람 만들기’로서 ‘친척’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 만들기’는 인간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낮설고, 불가사의하고, 끊임 없이 출몰하는 활동적인 무엇”이다.³⁹⁾ 이것은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과 ‘반려종 선언’의 발전이다. 해러웨이는 인간중심적인 이분법을 거부하기 위해서 기계 혹은 동물과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이러한 선언들을 했다. 해러웨이가 주장하는 ‘사람 만들기’는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발전시켜내는 포스트휴머니즘적인 사유가 아니라, 불확실하고 또 실수가 용납될 수 밖에 없는 퇴비더미들을 함께 만들면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이야기이다.⁴⁰⁾ 쓸루세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명이 함께 살기가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시기다.

이상에서 관계적 사유를 통한 ‘되기의 윤리’의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러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되기의 윤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기에서 출발한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모두 함께 살기 위한 실천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기후 위기로 인한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윤리적 과제가 요구된다. 이는 구분하기가 아닌 공감을 바탕으로 공감하는 시민 되기가 그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공감하는 시민 되기’와 기독교윤리

본 연구는 ‘공감’하는 일과 ‘시민 되는’ 일을 기독교윤리적인 차원에서 사유하기 위해서 예수의 성육신 사건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원수 사랑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되기의 윤리’의 기독교윤리적 가능성을 고찰하려고 한다.

39) 위의 책, 176-178.

40) 주기화, “신유물론, 해러웨이, 퇴비주의,” 140-141.

본 연구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성육신 사건이다. 근대적 인간 이해, 즉 정신-물질의 이분법과 인간 예외주의에 기초하여 이성 중심의 인간 이해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 이해, 인간 감정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포스트모던 시대의 담론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없다.⁴¹⁾ 오늘 이 시대에 ‘공감’의 덕과 어울리는 기독교적 인간관은 성육신적 인간주의이다. 왜냐하면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문화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면서 보편 윤리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²⁾ 성육신의 의미를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그 윤리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다음의 관점에서 가능하다. 첫째는 생태 신학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세계의 긍정, 즉 세계가 하나님이 아들이 거주하는 구체적인 장소라는 믿음이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주하셨던 그 장소에서 이뤄지리라는 믿음과 연결된다. 둘째는 여성 신학의 관점과 연결되어 몸과 욕망을 긍정하면서 자연과 문화가 상호 긍정하면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은 신성한 것이라는 믿음이다.⁴³⁾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되기’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주체 의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생명의 긍정을 가능하게 하며, 물질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성과 속의 분리를 근거로 공감이란 아닌 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특히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에게 깊은 윤리적 성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두 번째로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주목한다.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공감하는 시민 되기’를 위한 기독교윤

41) 김은혜, “기독교 인간주의에 대한 성찰: 새로운 문화현상에 대한 신학적 응답,” 『선교와 신학』 33(2014), 223-224.

42) 같은 글, 227.

43) 김은혜, “포스트 휴먼 시대의 되기의 기독교 윤리,” 222-223.

리적 실천을 매우 잘 드러낸다.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존재(being)’가 아닌 ‘되기(becoming)’를 실현하는 사람임을 가르치고 있다. 유대교는 ‘선함’과 ‘부정함’을 하나님의 법(토라)의 전통으로 만들어냈다. 유대교에서 ‘선함’은 하나님의 법(토라)를 잘 따르는 사람으로, ‘선하다’는 형용사는 사마리아인에게는 사용될 수 없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부정함’을 대표하는 그룹이었다. 예수는 ‘부정한 사마리아인’이어야만 하는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다. 아니 예수는 ‘정결함’의 대표인 레위인이 부정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 주장에는 예수가 인종적 편견으로 ‘선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만들어서 혐오와 배제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낸 유대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고발이 들어있다.⁴⁴⁾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다. 예수는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율법교사는 다음 질문으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유대 전통이 부정한 자를 정해두고, 그들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교사의 생각의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한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외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도와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율법교사의 대답은 그의 위선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선을 베푸 사람입니다”라고 답한다. ‘사라마아’는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혐오와 배제의 대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말한다.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이웃이 되어주어라.” 여기에는 예수의 비판의식이 숨어 있다. 예수는 약자를 혐오와 배제하기 위한 율법의 전통을 거부하였다.⁴⁵⁾

44)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88], 2006), 239.

기독교인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존재(being)’에 대한 기준으로 ‘되기(becoming)’의 삶을 등한히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율법교사와 같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힘과 배제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것이다. 공감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강도만난 사람을 보고 함께 고통하면서 그를 치료하는 일이다. 이것은 ‘구분짓기’가 아닌 ‘되기’의 과정이다.

셋째, ‘공감하는 시민되기’의 기독교윤리적 성찰을 위한 예수의 가르침의 가장 깊은 내용은 누가복음 6장 평지 설교에 나오는 원수 사랑의 윤리에서 드러난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리콤프의 해석이 탁월하다. 리콤프는 그의 글 “사랑과 정의”에서 이 둘의 변증법적 관계를 밝히면서 예수의 원수 사랑의 가르침을 윤리적으로 해석하였다.⁴⁶⁾ 사랑과 정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용서를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정의는 공정한 분배, 즉 법의 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리콤프는 사랑을 ‘넘침의 논리’로 정의를 ‘등가의 논리’라고 이야기한다. 넘침의 논리는 ‘선물경제(l'économie du don)’ 원리로 이는 초윤리(supra-éthique)라고 불린다.⁴⁷⁾ 원수사랑은 현실적이지 않은 반면, 등가의 논리를 적용한 황금률은 현실적이다.

리콤프는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에는 ‘원수사랑’과 ‘황금률’이 동시에 나오는 점에 주목한다. 리콤프는 이 두 개를 변증법적으로 해석한다.⁴⁸⁾

45) 조태연·차정식·유승원, 『뒤집어 읽는 신약성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89.

46) 폴 리콤프, 박건택 역, “사랑과 정의”, 『신학지남』, 239 (1994) 232~253. 그리고 최현 역, “사랑과 정의”, 『시민과 세계』, 7(2005), 490~512. 이 글은 이상과 같이 두 번 번역되었다. 이 글은 최현 역을 위주로 박건택 역을 참고하였다.

47) 리콤프가 처음 이 글을 썼던 언어가 불어이기 때문에 불어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다. ‘l'économie du don’를 박건택은 ‘증여경륜’으로 최현은 ‘은혜의 질서’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김혜령은 이 용어가 계속해서 쓰이면서 ‘선물경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선물경제’로 번역하였다(김혜령, “폴 리콤프의 ‘선물경제(l'économie du don)’ 개념으로 살펴본 사랑과 정의”, 『현대유럽철학연구』, 39(2015), 133~159).

누가복음 6장 27-38절의 본문은 앞과 뒤에 ‘원수사랑’의 계명이 나오고 중간에 샌드위치 구조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라’는 황금률이 등장한다. 황금률은 보통 공리주의적으로 해석된다. ‘원수사랑’은 넘침의 논리로 ‘황금률’은 등가의 논리로 이해된다. 누가복음 6장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황금률이 원수사랑 계명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인 차원의 황금률(등가의 논리) 보다는 원수사랑(넘침의 논리)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리콥르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면서, 평지설교에서 원수사랑과 황금률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고, 황금률을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의(등가의 논리)와 사랑(넘침의 논리)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계명을 완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리콥르는 평지설교의 황금률은 등가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넘침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황금률도 사랑의 질서 아래 있을 때에 비로소 정의와 사랑의 법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⁹⁾ 다시 말해서, 리콥르의 주장은 사랑의 명령이 삶의 현실 속의 정의의 법에 녹아들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정의의 기초인 호혜성의 단점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폐쇄적인 관계를 만들어 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넘침의 논리’에 기초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건적인 주고 받음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사랑의 토대위에 정의가 세워질 때, 다시 말해서 사랑의 기초위에 정의가 세워질 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정의는 사랑으로 더 구체화되어야만 그 의미를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다.⁵⁰⁾

리콥르의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관계는 ‘되기의 윤리’의 기독교적 의

48) 폴 리콥르, 최현 역, “사랑과 정의”, 506-509.

49) 같은 글, 509-511.

50) 김혜령, “폴 리콥르의 ‘선물경제(l'économie du don)’ 개념으로 살펴본 사랑과 정의”, 152-154.

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초윤리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구현하라는 의미이다. 호혜성을 바탕으로 등가의 논리를 구현하기 위한 황금률의 구현이 아닌, 초윤리적인 넘침의 논리를 실현하기 위한 황금률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사랑은 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인 실천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황금률의 실천이 사랑을 실현하는 길임을 이해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 ‘공감’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삶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V. 나가는 말

코로나19 위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계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한국 개신교는 개신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시민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급변하는 시대에 기독교가 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 개신교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암담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본 연구는 ‘공감’, ‘시민’, ‘되기의 윤리’를 키워드로 ‘공감하는 시민 되기’를 구현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시민의 덕으로서의 공감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되기의 윤리’의 가능성을 해러웨이의 ‘트러블과 함께 하라’는 ‘되기의 사유’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서 ‘공감하는 시민 되기’를 주제로 기독교 윤리적인 사유를 시도하면서, 예수의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한 ‘되기’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황금률의 실천을 통한 ‘원수사랑’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공감하는 기독교 시민 되기’ 위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지혜롭고 순결하게(마10:16)’ 살아갈 것을 부탁하셨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마5:13-16). 이는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의 두 왕국론에서 주장한 기독교인의 두 가지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시민)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시민)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지혜로운 거룩’이 필요하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순결함(거룩)이라는 매우 중요한 덕과 함께 지혜의 덕이 필요하다. 이는 비기독교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지혜가 바로 윤리의 황금률인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어라(마7:12).”이다. 이 황금률은 기독교인들만이 지녀온 지혜가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공유해온 지혜이다. 기독교도 이 지혜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황금률을 원수 사랑의 계명과 연결 지어서 말씀하심으로 절대적 사랑의 명령을 따르는 구체적인 지혜로 만드셨다(눅6:27-38).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독교인의 시민성의 기초, 즉 ‘공감하는 시민 되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본 연구의 추후과제도 함께 발견하게 되었다. 공감이라는 가치를 서구적인 사유로만 접근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세계관 속에서 공감의 가치를 꽃피운 한국의 성리학(유교)의 관계론적 공감 사유를 되기의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를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서론에서 잠깐 밝힌 한국적 근대화 과정에서 시민 개념과 기독교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도 추후에 진행할 필요를 발견하게 되었다. 끝으로 ‘시민되기’는 ‘시민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기독교 교육학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기독교가 ‘공감하는 시민되기’의 장으로 나올 수 있

도록 보다 더 한국적인 차원의 사유들을 전개하는 것을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 기윤실. 「2023년 한국교회신뢰도 조사 자료집」 202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88], 2006.
- 김은혜. “포스트 휴먼 시대의 되기의 기독교윤리.” 『신학과 사회』 32(2)(2018), 211-243.
- _____. “기독교 인간주의에 대한 성찰: 새로운 문화현상에 대한 신학적 응답.” 『선교와 신학』 33(2014), 211-240.
- 김혜령. “폴 리콥르의 ‘선물경제(l'économie du don)’ 개념으로 살펴본 사랑과 정의.” 『현대유립철학연구』, 39(2015), 133~159.
- 리콥르, 폴. 박건택 옮김. “사랑과 정의.” 『신학지남』 239(1994) 232~253. 그리고 최현 옮김. “사랑과 정의.” 『시민과 세계』 7(2005), 490~512.
- 막스 셸러. 이을상 옮김. 『공감의 본질과 형식』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 박상필. “시민사회의 한국적 적용과 변용.”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3), 109-145.
- 박선영·목광수·김승환·성신형. “시민성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이해 분석과 기독교사회 윤리적 답변.”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63~105
- 성신형. “도나 해러웨이의 『트러블과 함께하기』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교차 읽기: 기후위기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성찰.” 『선교화 신학』 59(2023), 365-388.
- 이병임,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5(3)(2021), 183-194.
- 이선영. “다문화 시민성의 구성요소로서의 공감의 확장성.” 『글로벌교육연구』 5(2)(2013), 47-68.
- 이종일. “사회변동과 시민성 논쟁.” 『사회과교육연구』 25(3)(2018), 1-19.
- 임마누엘 레비나스,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옮김. 『전체성과 무한 -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고양: 그린비, 2018.
-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길, 2017.
- 정재원. “혐오사회와 공존의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9(11)(2019), 99-118.

- 조태연·차정식·유승원, 『뒤집어 읽는 신약성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최승현, “코로나 4차 대유행인데 ‘대면 예배’ 강행한다는 목사들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어, 마귀 사주받은 공산당이 하는 수작.” 『뉴스엔조이』 2021년 7월6일, 인터넷판, 2023년 4월21일 접속.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85>
-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서울: 도서출판 b, 2020.
- 해러웨이, 도나. 최유미 옮김.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서울: 마농지, 2021.
- _____. 황희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인간과 동물과 사이보그에 관한 전복적 사유』. 서울: 책세상, 2019.
- _____. *When Species Mee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논문투고일: 2023년 07월 13일

심사게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13일

• 국 문 초 록 •

우선 본 논문은 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계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한국 개신교의 모습을 성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한국 개신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시민성에서 찾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공감하는 시민 되기’의 윤리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감’, ‘시민’, ‘되기의 윤리’를 키워드로 ‘공감하는 시민 되기’를 구현하는 길을 기독교윤리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시민의 덕으로서의 공감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되기의 윤리’의 가능성을 해러웨이의 ‘트러블과 함께 하라’는 ‘되기의 사유’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서 ‘공감하는 시민이 되기’위한 기독교 윤리적인 사유를 시도하면서, 예수의 성육신의 의미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한 ‘되기’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를 통한 황금률의 실천을 통한 ‘원수사랑’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공감하는 기독 시민 되기’ 위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주제어: 공감, 시민성, 되기의 윤리,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 기독교사회윤리
